

장성 '청렴문화' 이젠 세계로 전파

중 기업 CEO 10명 방문 청렴교육 받아 유적지 탐방 등 체험관광 프로그램 인기

장성군 청렴문화 체험교육이 국내를 넘어 아시아까지 물꼬를 댔다. 장성군 청렴문화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장메이롱 청두 삼과투자 주식유한회사 회장 등 중국기업 CEO 10명이 장성을 방문, 군의 청렴문화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일부터 열린 '중국기업 경영자 매니지먼트 투어' 공식 일정을 마치고 우수 지자체 방문을 원하는 CEO들을 별도로 구성해 이뤄졌다. 장성군의 청렴문화 체험교육에 아

시아 유교문화권 나라의 첫 방문이라는 데 의미가 매우 크다. 중국은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부터 관리들의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전념하고 있어 중국 기업인들의 장성 청렴문화 체험이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주석은 최근 사법기관을 총괄하는 중국 정부 회의에 참석해 '무리에 해를 끼치는 말(馬)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패척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장성을 찾은 중국 기업인들은 청



장성군 청렴문화센터를 찾은 중국 기업인들이 12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백리 자연방사를 체험하고, 청렴 유적지인 아곡 박수랑 선생의 백비를 탐방한 후 청렴문화센터로 이동해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관계자는

“청렴교육이 드디어 아시아까지 물꼬를 트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교육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청렴교육을 국제 프로그램으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청렴문화 체험교육은 지역이 배출한 청백리인 ‘지지당 송홀’과 ‘아곡 박수랑’ 선생의 청렴정신 배양, 치유의 숲 축림산에서의 심신수련, 청렴유적지 탐방 등 교육과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체험관광 프로그램이다. 지난 2년여 동안 216개 기관에서 487회에 걸쳐 총 3만465명의 공직자가 다녀가는 등 전국적인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올해 다시마·홍합·강도다리 추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18개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이 올해 3개가 추가돼 18개로 확대됐다. 전남도는 올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으로 기존 15개에 다시마, 홍합, 강도다리 등 3개가 추가됐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15개 품목은 넙치, 우럭,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불락, 쥐치, 송어, 뽕장어, 전복, 굴, 김, 미역, 멧게 등이다. 2017년까지 3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양식수산물과 양식 시설물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성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어민들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3억원이 늘어난 15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빈번한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보상이 가능한 재해보험 가입이 매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76건에 불과하던 가입건수는 2011년 157건, 2012년 351건, 지난해는 무려 17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가입 건수는 전국(2008년)의 54%를 차지했다. 품목별도 전복이 733어가 가장 많고 넙치 등 어류 291어가, 굴 37어가, 김 16어가 순이다. 보험 가입이 늘어난 것은 어민 부담이 기존 35%에서 20%로 줄어든데다 꾸준한 홍보가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전남도는 보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해남군 출산장려 협약

해남군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이를 위해 최근 목포 YWCA 돌봄서비스사업단, 다사랑간병공동체 등 2개 사업체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등 국가바우처사업에서 소득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 군비로 12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국가 바우처사업에는 175명, 해남군 자체 사업에는 21명 등 총 196명이 서비스 혜택을 누렸다. 해남군은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다문화가정 자국민파견 서비스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출산장려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남군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시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민물새우 '옴천토하' 어부들이 13일 강진군 옴천면 산골짜기 다랑이 논에 열을장을 깔고 수초 사이에서 민물새우인 토하(土蝦)를 잡고 있다. 농민들은 1급수에서만 사는 옴천토하를 3월까지 잡아 염장하고 숙성을 거쳐 판매한다. (강진군 제공)

무안에 소방서 생긴다

무안에 소방서가 신설된다. 전남도는 13일 남양진도시 개발과 무안공항 개항 등 소방수요가 늘어난 무안에 소방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안은 무안읍 옛 군부대 이전지가 유력하며 사업비는 70억원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무안 소방서에는 30여명의 인력과 기존 12곳에서 13곳으로 늘게 된다.

지역센터는 41곳, 지역대는 105곳이 운영중이다. 기존에는 목포소방서가 신안과 함께 담당해왔다. 무안읍에만 11층 고층 아파트가 25개 동(棟) 2300여 가구에 달하는 등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무안국제공항 등의 소방 수요도 크다.

배치된다. 무안지역은 도내 군 단위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인구 유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 무안읍에만 11층 고층 아파트가 25개 동(棟) 2300여 가구에 달하는 등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무안국제공항 등의 소방 수요도 크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남양진도시 개발·무안 공항 등 수요 증가 연내 부지선정·설계 마무리 내년에 착공

무안 소방서 신설은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군의회, 번영회, 의회소방대연합회 등에서 꾸준히 건의해왔다. 전남도는 장기적으로 '1시간 소방서'를 목표로 소방력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2017년에는 장성에도 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안군,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100% 인상

신안군은 올해부터 3억3000만여 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에 비해 100%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그동안 만 65세 이상 6·25전쟁과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 4만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해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 미망인과 전몰군경 미망인에게도 나이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신안군은 참전명예수당 외에도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위로금 15만원과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할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수당 인상으로 500명의 참전유공자와 190명의 미망인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고령으로 질병과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을 아우르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진기자 sslee@

■ 새 얼굴

“최악 부진 조선업 대안 제시 노력”

전 경진 한국은행 목포본부장

“전남서부지역 제조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업이 최악의 부진을 겪는 시기에 지역 금융권의 수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취임한 전경진(54) 한국은행 목포본부장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우선 지역경제 현안에 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본부장은 이어 직원들에게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소외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은행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합평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전남대를 졸업한 그는 1986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실장, 전산정보국장, 전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상' 상초월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